

보도자료	2026. 09. 14.(월) 09:00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ICT자격본부 검정관리팀 서혜련 팀장 (061) 350-1631
	배 포 : 경영기획본부 ESG혁신홍보팀 최근수 대리 (061) 350-132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6년 정보통신기술사 28명 배출해
- 1990년대생이 8명(28.6%)으로 역대 최다 기록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2026년도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시험을 총 2회 시행한 결과, 연간 총 28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사는 유·무선 통신망(네트워크), 인공지능(AI), 정보보호 등 정보 통신 기술(ICT) 전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최고 권위의 국가기술자격이다. 올해 두 차례 치러진 면접시험에서는 총 52명이 응시해 28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올해 전체 합격자 중 1990년대생은 총 8명(28.6%)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0~2025년 사이 연평균 1~2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세이다. 또한, 합격자 연령대는 1960년대생부터 1990년대생 까지 고르게 분포해, 현장 비결(노하우)와 최신 유행(트렌드) 감각이 융합된 기술 선도자(리더) 집단(그룹)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향후 공공 및 산업계 전반에서 디지털 시설(인프라) 구축, 융복합 체계(시스템) 설계·감리,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이끄는 핵심 선도자(리더)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은 "청년 기술사의 증가는 국가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의 미래 경쟁력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인공지능(AI)·초연결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산업계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기술인력이 꾸준히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검정관리팀 오찬석 차장(☎ 061-350-16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